

4-1 (52) 남궁 승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맑음

제목 : 엄마가 걱정하세요?

어제부터 엄마가 편찮으셨다

머리가 아파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파 앉거나

서있을 수 밖에 없으셨다고 하셨다.

다행히 조금씩 나아지셨다고 하셨다.

생각해보니, 엄마는 잠을 못 주무시면

몸살같은 병이 나신다고 하셨다.

걱정이다.

엄마가 빨리 낫으시면 좋겠다.

'엄마, 빨리 낫으세요'

나는 내일이면 괜찮아 질 거라고 생각하셨다.

정말로 그래요면 좋겠다.

